

문화

Culture

광주일보

제17497호 2006년 7월 12일 수요일



25현 가야금 공연

국악 전통 우리가 이을래요

오늘 목포서 도립 어린이국악단 창단 연주회

‘국악의 전통 우리가 이어갈래요’

전라남도립 어린이국악단(이하 어린이국악단)이 창단 연주회를 갖는다. 12일 오후7시 목포 시민문화센터 대공연장.

어린이국악단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생 48명(창악부 14명, 무용부 13명, 악기부 21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해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출범했다.

객원지휘자 최상진씨와 전남도립국악단원 9명의 지도를 받아온 단원들은 방학을 이용한 수련회와 매월 2·4주째 토요일 강습을 통해 실력을 닦았다. 또 지난 2월부터는 목포에서 열리고 있는 도립국악단 토요상설공연 무대에 함께 서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

이번 공연에서는 설장구 가락을 서양음악과 함께 신명나게 재구성한 ‘New Vision -1 신명’ ‘판소리 입체형’, 무용 ‘꼭두각시 인형’, 25현 가야금 연주, 가야금병창 등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에는 사회복지시설 구성원 및 목포권에서 정착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초청할 예정이며 오는 9월부터는 여수·광양 등 전남 동부지역에서 열리는 수요상설공연 무대에 설 계획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산용전들노래’ 백중놀이 행사

13일 광주 건국동 용전마을 앞

광주 지역 대표적 농요인 ‘지산용전들노래’ 백중놀이 행사가 13일 오후1시 30분 광주시 북구 건국동 용전마을 용전교회 앞에서 열린다.

음악 7박 8일 백중을 맞아 펼쳐질 이번 용전 들노래 현장을 농군들의 피로를 덜고 노동력을 높이기 위해 모판 밟기, 모치기, 모심기, 논매기, 장원질 등의 5개 과정으로 나뉘어 흥겹고 경쾌한 장단을 선보일 계획이다.

30년 전 자취를 감췄던 지산용전들노래는 북구청과 지역주민, 각계 전문가의 노력으로 옛 모습을 되찾아 지난 1999년에 열린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종합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이후 활발한 공연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존경하는 동료 선배 중개사님들께
또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모든분들께
아주 특별한 제안을 드립니다.

호남랜드공인중개사

☎ 373-3939, 휴 011-616-8698

(영주동 서광주체육관)

전속중개계약 취급업소입니다.

공장 급 매매

소재지: 화순군 능주면 청정리 7-19호 1필 능주농
공단지내 면적: 3,073평 공장면적 1,482평
구조: 철근콘크리트 2층 건물 및 슬라브조
매매가: 매매가격 12억 5,000만원

건물 매매(2동)

소재지: 남구 서동 65-72 대상초고가 거리 25m 대로변
면적: 대지 66평 건평 275평 (지하 1층 55평)
구조: 대지 66평 건평 275평 (지하 1층 55평)
매매가: 보증금 1억 6,000만원 월 180만원
매매가격 4억 6,000만원

토지 매매

소재지: 남구 노대동 노데마을 일대로변, 일민주
거리역, 실버타운 애정지, 진월 택지지구
비로 옆 면적: 521평
매매가: 매매가격 평당 100만원

투자적합

소재지: 서구 농성동 종흥APT 40m×20m 대로변
구조: 조립식 단층 46평 (3층 건축 가능) 총면적 70평
매매가: 평당 400만원
주 천: 대로변 천 40m 도로변 광고효과, 건너편 재개발구역

상가전문 전속중개계약 업소입니다.
항상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물건을 가장 신속하게
처리하는 상가전문
상가문의 최적 환경
박사장

mobile) 010-7288-4351 • 0342-894

부동산은 금방 사라집니다. 빨리 사세요! 3월 31일 까지 광주부동산
에인공인증개사 박사장

기아차 오페라 갈라 디너파티

벤츠 코리아 와인강좌·팝송공연

보해양조 고객초청 영화상영

벽산 아파트 모델하우스 요가강좌

광주에도 문화마케팅 바람



기업 미케팅에 문화 마인드를 접목한 문화 마케팅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국립오페라단과 함께 한 기아자동차의 행사 모습.

기업들 문화예술행사로 고객과 직접 만나

지난달 17일 광주신양파크호텔에서 색다른 행사는 열렸다. 기아자동차가 최근 새롭게 선보인 ‘뉴오피러스’ 출시를 기념해 고객 100쌍을 초청, ‘오피러스 오페라 갈라 디너파티’를 개최한 것. 7가지 코스 요리와 함께 진행된 이날 갈라공연(유명 작품의 하이라이트 부분만 모아 공연 하는 것)에는 국립오페라단이 출연, ‘아이다’의 ‘개선 행진곡’, ‘파우스트’의 ‘병사들의 합창’ 등을 선사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비슷한 행사를 열었던 기아자동차가 광주에서 이같은 문화행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기업의 마케팅에 문화 행사와 마인드를 접목한 문화 마케팅이 관심을 끌고 있다. 협약한 경제 여건상 서울 지역의 기업들에 비해 아직은 미미하고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문화마케팅 바람은 광주에서도

조금씩 불고 있다.

메세나가 기업의 임여 이익을 사회에 활용하는 사회 공헌과 홍보에 중심을 두고 있는데 반해 문화 마케팅은 궁극적인 목표가 기업의 임여 창출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로 ‘골프 예약’ 등을 주로 진행했던 수입차 판매업체 벤

코리아 광주전남 공식딜러는 몇몇 전

처음으로 문화 행사를 접목한 고객 사은 행사를 개최했다. 호남신학대학교에 위치한 카페 ‘T 브리운’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외인 전문가의 강의와 함께 시음회가 진행됐으며 현악 4중주단의 연주와 팝송 공연도 이어졌다.

‘블루밍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벽

산건설은 1천 200평 규모의 모델하우스

고객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해 고 있다. 매주 월요일(오후 3시~5시)에는 ‘김종식 노래아카데미’가 진행되며 화요일과 금요일(오전 11시)에는 요가 교실을 열고 있다. 휴가 등으로 방문객이 즐기는 7~8월에는 좀 더 다양한 문화관련 교양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해양조는 ‘영화’를 통한 문화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까지 매년 1~2회에 그쳤던 고객 초청 영화 상영

을 올해는 두달에 한번으로 늘려 매회 1천여명의 고객들을 초청한다.

올해는 ‘청춘만화’ ‘나빈치 코드’ 등을 상영했으며 오는 18~20일에는 강우석 감독의 화제작 ‘한반도’를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을 홈페이지(www.bohae.co.kr) 이벤트를 통해 제공한다.

그밖에 KTF 광주지사는 매주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사육 대강당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노래교실을 열고 있다.

문화마케팅 전문가인 김우정(종류 일가 대표)씨는 “문화 마케팅은 생색내기 협찬과는 다른, 문화와 경제가 동반 성장하는 원원 전략으로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며 “문화 마케팅에 많은 예산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 지역 기업이나 중소기업 CEO들이 마인드를 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제 여건이 성숙하지 못한 지역 중소 기업들의 경우 ▲사내 도서관 건립(작은 도서관) ▲사내 문화동아리 만들기 ▲직원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생활(공연·전시·영화관람 등) ▲회식문화 혁신(술먹는 회식에서 즐기는 문화회식) 등 직원을 비롯한 ‘내부 고객’들을 위한 문화 마케팅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영화관 줄었지만 스크린수는 늘어

■ 영진위 2005년 극장·스크린 현황분석

광주·전남 멀티플렉스관 급증세

국내 영화관의 판도가 변화하고 있다. 최근 5년동안 전통적인 개념의 영화 상영관 수는 감소하는 대신 7개 이상의 스크린을 보유한 멀티플렉스 극장의 스크린 수는 전체의 77%를 차지하는 등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10일 발표한 ‘2005년 극장 및 스크린 현황분석’에 따르면 전국 영화관의 스크린 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1천 648개(멀티 플렉스 1천 269개 포함)로, 2001년 818개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영화관 수는 344개에서 301개로 감소했다. 영화 관수 대폭 감소했음에도 스크린 수

가 늘어난 것은 대형 멀티플렉스가 많이 신설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의 경우 멀티 플렉스 극장 스크린 수는 ▲2001년 6개(19.4%) ▲2002년 20개(50.5%) ▲2003년 30개(69.8%) ▲2004년 40개(71.4%) ▲2005년 46개(85.1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10일 발표한 ‘2005년 극장 및 스크린 현황분석’에 따르면 전국 영화관의 스크린 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1천 648개(멀티 플렉스 1천 269개 포함)로, 2001년 818개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영화관 수는 344개에서 301개로 감소했다. 영화 관수 대폭 감소했음에도 스크린 수

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1천 648개(멀티 플렉스 1천 269개 포함)로, 2001년 818개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영화관 수는 344개에서 301개로 감소했다. 영화 관수 대폭 감소했음에도 스크린 수



지난 5년간 멀티플렉스의 급증으로 영화관 수는 줄었지만 스크린 수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개관한 ‘메가박스’ 광주점. 〈메가박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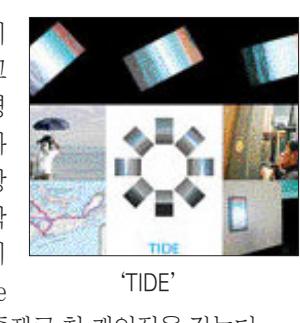
이 지역의 한 멀티 플렉스 영화관 관계자는 “광주의 경우 인구 수에 비해 영화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자본력을 가진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의 진출이 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영화관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프리미어 등 5대 멀티플렉스 체인이 총 858개의 스크린을 보유, 전체 스크린의 52.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진시영씨 영상설치 展

19일까지 창동 미술창작 스튜디오



영상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진시영씨가 19일까지 서울 창동 미술창작 스튜디오에서 ‘Distance’(거리)를 주제로 첫 개인전을 갖는다.

지난 3년 동안 자신의 작업을 결산하는 이번 전시에서 그는 ‘Human Maze’, ‘TIDE’ 등 뉴욕에서 제작한 작품들과 귀국 후 창작한 ‘골목길’ 등 비디오 영상 설치작품을 선보인다.

무등미술대전·광주전선 등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2001년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 브루클린 대학원에서 영상을 전공했다. 조선대 미술대 학장을 지낸 고 진양우 교수의 아들이기도 하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매일밤 8시부터 쇼! 쇼! 쇼! 애들은 가라!!

태진아
7월 20, 21일

부킹천국 100%

정통 성인나이트 만을 고집하는
광주상무나이트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